

# 1848年 革命期 手工業者의 勞動運動

이 민 호

(서양사학과 교수)

## 1

독일 전역에서 혁명의 기운이 확산되는 가운데 베를린에서도 혁명이 일어나 바리케이트가 구축되고 시가전이 전개되었다. 혁명에 가담한 사람들은 19세기 초부터 부르센샤프트(Burschenschaft)운동이 좌절된 뒤 꾸준히 자유와 통일의 요구를 내건 시민계급, 급진파 지식인, 학생 그리고 노동자 층이었다. 이미 노동자 계층은 혁명이 일어나기전 프랑스나 스위스 등지에 편력하면서 급진적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노선의 비밀동맹에 가담하였고 그 영향을 받아 독일 각지에서 각종 노동자 협회(Arbeiterverein)를 조직하면서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노동자들이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사회적 구성이 무엇인가? 또한 그들이 내건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무엇인가? 이러한 물음들은 3월혁명의 성격만이 아니라 이 시대 독일 노동계급의 형성이 후기의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를 밝혀줄 수 있는 방법과 결부된다.

이 시대는 아직도 본격적인 산업화가 전개되지 않았으므로 노동계급을 구성하고 노동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공장 노동자의 열세라는 상황에서 대부분 수공업 구성원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데 오늘날의 관심이 집중된다.<sup>1)</sup>

독일에 있어서 노동계급의 형성과정과 노동운동에 관한 연구는 오랫동안 본격적인 산업화의 단계를 기점으로 진행되었으므로 19세기 전반에 수공업 적인에 의해서 전개된 노동운동은 본격적인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sup>1-2)</sup>

19세기 전반, 즉 혁명전(Vormärz)과 혁명기에 체제에 저항하고 광범위한 조직활동을 전개한 사회층은 바로 수공업에 종사한 노동자층이었고 지식인들의 다양한 반항적 이데올로기가 확산될 수 있었던 대상도 바로 수공업 적인들이었다.

19세기 초, 나폴레옹 지배하에 프로이센을 위시하여 각 연방국가들에 의해서 근대화 개혁

본 논문은 1988년도 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이다.

1) 이민호, 노동계급형성의 수공업적 단계(노동계급의 형성, 1989), pp.1~21.

1-a) J. Kocka, Craft traditions and the Labour movement in nineteenth-Century Germany, in: P. Thane and others (ed.), The Power of the Past (1984) p.95~ 따라서 수공업 역사와 노동사는 각각 분리되어 전자가 소규모 경영의 수공업(Handwerk)에 관계되고 후자는 산업(Industrie)에 관계되어 연구되었는데 이러한 시각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단행되면서 영업자유(Gewerbefreiheit)가 도입되어<sup>2)</sup> 수공업의 봉쇄성을 타파하고 근대적 산업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러나 나폴레옹전쟁중 독일은 대륙 봉쇄령으로 해외무역에서 차단되어 제조업, 상업, 운수업 등이 극도로 쇠퇴하였고 이러한 사태는 전쟁후에도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따라서 19세기 30년대나 40년대에 도 전통적 준프트에 예속된 소규모 생산체계가 산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수공업 세계에서는 장인과 직인간의 가부장적 유대관계가 인노동체제로 변질되고 장인으로서의 길이 막힌 직인의 편력기간이 장기화됨으로써 그들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또한 영업자유령으로 우후죽순처럼 증가된 단독수공업자들은 아무런 보조노동력도 갖추지 않은 채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신대제도나 대뉴팩처뿐만 아니라 새로 세워진 공장의 노동자들도 대부분 수공업자들로 구성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혁명전과 혁명기에 전개된 노동운동의 핵심이 수공업자 직인 내지는 영세화한 단독수공업자들이었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이 시대 노동운동의 조직, 이데올로기, 또한 그 의식이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노동운동의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 고자 한다.

## 2

일반적으로 혁명전과 혁명기에 걸쳐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체계 반항적 운동을 전개한 것이 이 시대의 노동자들(Arbeiter)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개념을 아무런 비판없이 사회 하층에 위치하는 프롤레타리아트 일반과 일치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의문에 먼저 직면한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의 이른바 '노동자'들이 어떤 사회적 조건에 놓여 있었는가를 묻는 일은 후기의 노동운동과 이 시대 노동운동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19세기 전반, 독일에서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서는 이미 엥겔스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이 '다만 군데군데, 또한 맹아적으로' 존재하였을 뿐이었다.<sup>3)</sup> 그러나 산업 프롤레타리아의 발전과 더불어 비로소 계급으로서의 근대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바로 이 핵심없는 노동계급의 형성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도식적인 관점<sup>4)</sup>만으로는 이 시대의 노동계급의 본질을 이해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관점은 노동자들이 종속된 자본주의 생산 양식과 관련되어 '신대제도'나 '메

2) 이민호, 프로이센 영업자유령과 수공업(명지사학 1집).

마르크스적 관점에서는 수공업 직인이나 장인은 산업의 확대 과정에서 미구에 소멸될 과도적 사회계층이라고 파악된다.

3) F. Engels, Die deutsche Reichsverfassungskampagne, in: Marx/Engels, Werke, Bd. 7 (1960), S. 117.

4) W. Schmidt, Zu einigen Frage, in: Beiträge z. G. der dt. Arbeiterbewegung 7 (1965), H. 4, S. 649.

뉴팩처' 또는 근대적 대기업이라는 각각의 다른 단계를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하게 취급하여 '직접 자본가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자유로운 임노동자로 출현하는 모든 계층'을 프롤레타리아로 간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가 완결되고 동질적 대중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으로 성립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노동운동에서 공장 노동자보다는 수공업 직인이나 가내공장노동자들이 사회적, 정치적 관점에서 더욱 큰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이 무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우기 이들에 의해서 진행된 노동운동은 19세기 후반의 전진적인 노동운동과는 달리 상당히 과거지향적이고 역행적이었던<sup>6)</sup> 사실을 간과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이 진행되는 가운데 형성된 프롤레타리아 계급 개념을 19세기 초반의 수공업 노동운동에 그대로 투사하는 일은 따라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19세기 초반에는 수공업직인들을 노동자라는 범주에 넣고 호칭하였는데 이들은 수공업과 공장경영에 속하는 비독립적 수공업자 일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따라서 노동자와 직인은 구분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다.<sup>8)</sup>

산업화 초기 단계에는 '노동자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용어는 확실히 구분되어 쓰여졌고 양자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확인된다. 혁명전의 용어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로 지칭되는 사회층이란 수공업 수련을 받지 않은 미숙련 노동 대중을 의미하였고 이들은 수공업자와는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프롤레타리아트'란 낱말이 산업화와는 관계없이 프랑스에서 받아들여져 사회단체 구조속에서 인구압력으로 낡은 사회적 척도를 돌파하고 넘쳐나온 광범위한 하층민의 표출을 뜻하는 용어로서 상용되었다. 그와는 달리 '노동자'라는 개념은 의식사회학적(bewusstsoziologisch) 개념이라기 보다는 직업사회학적(berufsoziologisch) 개념을 내포한다.<sup>9)</sup>

19세기 전반에 있어서 '노동자'라는 개념은 일하는 사람 일반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되어 수공업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비독립적 노동자를 표시하는 말로 쓰여졌다. 그것은 결코 가내 노동자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반 노동자를 표시하지는 않았다.<sup>10)</sup>

5) ebd.

6) D. Bergmann, Berliner Arbeiterschaft in Vormärz und Revolution 1830~50, in: Untersuchungen z. G. d. frühen Industrialisierung, S.455~.

7) T. Offermann, Arbeiterbewegung und liberales Bürgertum in Deutschland, 1850~1863, Reihe: Politik und Gesellschaftsgeschichte (1979), S.19.

8) R. Koselleck, Preussen zwischen Reform und Revolution. Allgemeines Landrecht, Verwaltung und soziale Bewegung von 1791 bis 1948 (1975), S.697~.

9) 이 용어는 프랑스의 Ouvrier을 번역한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노동자라는 개념은 1848년 전후하여 새로이 통용되어 "직인"과 보조원까지 포함하는 말이 되어 이 말속에서 사회체제내의 노동하는 인구(Arbeitnehmer)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종의 자기 이해가 깔려 있다.

F. Balsler, Sozialdemokratie 1848/49-63, die erste deutsche Arbeiterorganisation „Allgemeine Arbeiterverbrüderung“ nach der Revolution (1962), S.47f.

10) D. Bergmann, a.a.O. 당시 문헌 강로프(Karl Gangloff)는 그의 형제단이란 글에서 '우리는 노동자로서 보조 노동자, 직인 또는 공장 노동자만이 아니라 이들이 속한 장인까지 포함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노동 대중을 중심으로 산업화 이전부터 생성되어 신분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하층민이 '프롤레타리아트'라고 불리워졌다. 당시 노동계급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나타난 대로 사회적으로 구분한다면 '프롤레타리아트'란 개념은 일종의 경멸적 어감까지 내포하는 것이었다. 혁명기의 수공업자들이 그들 자신의 중산층으로서의 지위가 동요되고 '프롤레타리아트'로 강등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드러낸 데서도 이 말이 주는 의미 내용을 살필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동대중 내에는 자격과 그로부터 결과된 경제적 지위의 배분에 따라서 심한 사회적 편차가 드러나 그 정상에는 자격을 갖춘 노동계급과 그 반대의 극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노동대중, 즉 프롤레타리아트가 양립하는 상황이었다.

물론 수공업 직인, 공장노동자, 또한 미숙련 낱풀팔이의 경계가 유동적이라는 사실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각 계층이 놓인 각 경제적 조건과 사회적 지위는 상당한 편차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 노동운동은 주로 직인 노동자', 즉 노동하는 계급의 숙련된 소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이들은 그들의 자의식에서 '프롤레타리아트'로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콘제(Conze)는 지적한다.<sup>12)</sup> 혁명전과 혁명에 노동운동으로 그들 스스로를 노동자로서 계속감을 다진 주도적 세력이 곧 수공업 직인들이었다.

수공업 직인의 노동자 의식과는 달리 '프롤레타리아'라는 개념은 사회의 양극화가 가져다 줄 위기의식을 내포하면서 산업화 이전부터 받아들여져서 그것이 본격적인 산업화의 국면과 연결된 것이라고 풀이될 수 있라고 이 개념이 널리 쓰여지기 시작한 시기는 경제적, 사회적 위기 국면이 심화된 1840년대이다. 1846년 라도비츠(J.M. Radowitz)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거인처럼 그 모습을 들어내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시대의 괴물리는 상처, 즉 빈곤 현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또한 다가오는 혁명이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 것이 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sup>13)</sup>

당시 프랑스로부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새로운 교리가 독일에 받아들여져 프롤레타리아트의 개념과 결부되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 당시 프롤레타리아 계층 자체는 그들의 프롤레타리아 의식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혁명적 슬로건에 접속되지도 않았고 받아들였다하더라도 피상적이었을 뿐이었다.<sup>14)</sup>

11) 이민호, 1848년 혁명과 수공업자들 참조.

12) W. Conze, Der Beginn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in: Geschichte und Gegenwartsbewußtsein. Historische Betrachtungen und Untersuchungen (Fst. f. Hans Rothfels z. 70. Geburtstag. 1963), S. 326.

13) W. Conze, Vom »Pöbel« zum »Proletariat«. Sozialgeschichtliche Voraussetzungen für den Sozialismus in Deutschland, in: W. Fischer und G. Bajor (hrsg. von), Die Soziale Frage, neuere Studien zur Lage der Fabrikarbeiter in den Frühphasen der Industrialisierung, 1967), S. 27.

14) ebd.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농촌의 대중민군은 기존 질서에 대한 증폭된 비판을 제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이 되었다. 1840년 실레지아 직조공들의 폭동(Weberaufstand)을 정점으로 하는 반항과 파업이 과연 단순한 기아폭동을 넘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이념과 정신에 입각한 사회혁명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을 것인가? 로렌즈 시타인(Lorenz V. Stein)이 준비하고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트의 특별한 개념을 발전시킨 것은 바로 이러한 시대 배경이었다고 한다면, 이들 사상가들이 염두에 둔 이 시대의 사회적 반항의 주체가 누군가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당시의 한 기업가는 '그가 가진 기술과 상식으로 앓거나 나이들지 않고는 빼앗아갈 수 없는 자산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을 프롤레타리아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sup>15)</sup> 이것으로 보아서 사회의 위기감의 산물인 프롤레타리아트와 기존 사회의 질서속에 위치 한 적인 노동자는 명백히 다른 사회의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혁명전 독일 사회는 인구 압력<sup>16)</sup>으로 무산대중이 확산되고 이때까지의 신분적—단체권적 구조속에서 그들이 해방되는 상황에서 수공업 종사자들이 프롤레타리아트와의 일체감을 갖기 보다는 그러한 상황으로 스스로 몰락할 것을 두려워한 위기의식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공업 수업을 거쳐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공장 노동자에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베벨(Bebel)의 진술에 의하면 1860년대조차도 전자가 후자를 기피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수공업 직인들이 공장에 수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거의 수공업 신분으로부터 급격한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공장이라는 새로운 조건속에서도 그들의 사회적 명예(Ehre)를 존중하는 수공업적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7)</sup>

수공업 세계가 19세기 초의 영업자유에 의해서 심대한 구조적 변동을 겪은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이다. 자유경쟁은 긴 안목으로 볼 때 영업 증산층의 분화를 수반하였다. 극히 소수의 수공업 장인만이 공장장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규모 기업가로 상승하는 반면에 압도적 다수는 영세화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전망할 수 있다.<sup>18)</sup>

당시 수공업자 일반은 자유주의 경제 정책과 영업의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경쟁과 조제품

15) Harkorts 9. offener Brief (1849년말) W. Conze, ebd. anm. 24에서 재인용.

16) 프로이센의 통계학자 Dieterici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인구가 1816년부터 1846년까지 약 1000만에서 1600만으로 증가하고 1816년을 100으로 할때 공장 노동자 243 적인 212 달푼팔이 167 노비(주로 농업) 117, 또 노동하는 사람 158로 자자 증가하였다(전체 인구는 100에서 156으로). W. Conze, ebd. 29.

17) J. Bergmann, Das Handwerk im Übergang, in: Untersuchungen, S. 225~.

18) R. Koselleck, Staat und Gesellschaft in Preussen 1815~1848, in: H.-U. Wehler (Hrsg.), Moderne Sozialgeschichte (NWB. 10, 1973), S. 76 농촌에서는 적인도 없고 조세 부담에서 면제되어 주문 생산에 응하거나 수선업이나 보조 노동력을 제공하는 1인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나 도시에서 장인이나 직인을 가리지 않고 매주씩이나 공장 노동자가 되든가 일자리가 없는 수공업프롤레타리아트로 치하게 되었다. 그 반면에 공장을 차리는 소수의 수공자가 있는 층으로 분화되었다.

생산, 대량 생산과 자본 축적, 프롤레타리아화와 부르조아화라는 현상에 적극 반대하였고 이들이 소시민적 급진주의에 가담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영세화한 이들 장인들이 직인들과 함께 좌파 민주주의에 가담하였으므로 사회적으로는 보수적이었으나 정치적으로는 급진화하는 혁명기 수공업자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확인된다.<sup>19)</sup>

한편, 이러한 과정에서 장인보다 더욱 고통을 받은 것은 수공업 직인층이었다. 원래 이들의 이상이란 장인이 되는 것이고 준프트의 영예에 참여함으로써 안정된 사회적 지위를 차지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직인들도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사회적 유효성이 줄어든 준프트제도나 잉농(Innung) 제도에 추종하려는 태도가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경제적 변화의 결과, 소수 직인에게만 장인에의 길이 열리고 대다수 직인에게 그 길이 봉쇄되었기 때문이다.<sup>20)</sup> 따라서 '아무런 죄도 없이 사회 발전의 수레바퀴에 깔려버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뿌리 뽑힌 직인 계층이 그들의 사회적 구성요소로 보아 혁명의 원래적 담당자'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혁명전 노동자의 중핵이 수공업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집단적 유대로 결속되는 경우, 지식인, 공장 노동자, 또한 때로는 농민까지 포함된 민중운동이 전개되고 그들의 공통성을 표시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노동자'란 용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sup>21)</sup>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혁명전 독일사회는 본격적인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관세동맹의 자극으로 작센지방이나 실레시아와 같은 산업적 자극을 받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통적 생산양식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경영에 토대를 둔 경제구조에 밀어닥친 고통은 외국제품과의 경쟁과 인구증가에 의한 압력이었다. 30년대와 40년대에 걸쳐 노동력의 과잉공급과 하층민의 빈곤이라는 사회현상이 수공업 세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우선 소규모 수공업적 경영에서 직인수에 대한 장인수의 관계가 위기를 감지할 정도로 변질되고 비독립적 수공업자의 수가 독립적 수공업자의 수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sup>22)</sup> 뿐만 아니라 독일 어디서나, 업종이나 지역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장인에의 길이 막힌 직인수의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관세동맹의 창설과 철도 건설에 자극을 받고 라인란트, 베스트팔리아, 작센, 실레시아 등 중요 산업 지구의 의미가 새로이 부각되기는 하였으나 독일 대부분의 지역은 아직 농민과 수공업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었다.<sup>24)</sup> 따라서 이 시

19) R. Stadelmann u. W. Fischer, Die Bildungswelt des deutschen Handwerkers um 1800 (1955). 이들의 정치적 중요성은 혁명이 경과하는 동안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수공업 장인들은 수직 열세에 놓인 소 상인이나 소 농민과는 달리 소시민층의 핵심을 차지하였다.

20) R. Stadelmann: Die Soziale und politische Geschichte der Revolution von 1848 (1948).

21) W. Schieder, Anfäng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z. W. 4), S.83.

22) G. Schmoller,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Kleingewerbe im 19. Jht. (1870) Passim.

23) H. Bechtel, Wirtschaftsgeschichte Deutschlands im 19. und 20. Jht. (Bd III, 1956) S.219f.

24) W. Schieder, a.a.O., S.85.

대의 공장 노동자들은 숫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중요한 역할을 다할 객관적 상황에 있지 않았던 것이다.<sup>25)</sup> 예컨대 베를린의 공장 노동자가 1810년부터 1846년까지 6,000명에서 22,500명으로 늘어나 276%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증가율을 상대적으로 평가하면 수공업을 100으로 할때 공장노동자가 1801년 33, 1849년에는 49, 1861년에는 54로 표시되는 정도에 불과하다. 1846년 수공업자(장인과 그 종사자를 포함한) 44,800명은 베를린 전체 인구의 11.7%에 해당하여 당시 5.8%를 차지하는 공장 노동자 22,500명의 2배에 달한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베를린, 더욱 확대하여 독일은 여전히 수공업자의 도시와 나라였다고 할 수 있다.<sup>26)</sup>

그런데 이들 공장 노동자들은 수공업자들에 비해서 원래의 뜻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와는 달리 대중빈곤, 과잉인구, 실업상태라는 시대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고 쉽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유리한 조건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낮은 것은<sup>27)</sup> 임금체제와 사회적 평가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아직도 전 산업사회의 가치 개념이 지배하는 사회풍토 때문이었다.

따라서 계급의식으로 무장되고 혁명적 감각을 가진 프롤레타리아 계층이란 본격적 산업화와 더불어 서서히 형성된데 불과하고 이 시대의 공장 노동자들은 수공업 적인보다 의식이 온건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sup>28)</sup>

그러므로 혁명적 노동계급 형성을 위한 사회적 원천이 되고 정치적 노동운동의 시작을 담당할 것은 전통적 생산 양식에 종사하였던 수공업자들이었다<sup>29)</sup>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수공업 적인들은 혁명전, 30년대와 40년대에 프랑스·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각지를 배회하면서 급진적인 정치, 사회사상의 세례를 받고 조직화되는 추세에 있었다. 물론 그들의 바벨이란 적인 수입 기간과 편력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장인으로 자립하는 일이었다.<sup>30)</sup> 그러나 이미 편력 기간의 장기화가 곧 일종의 은폐된 실업 상태를 뜻하는 것이 확실하고 변화된 상황속에서 그들의 희망이 실현될 수 없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30년대 외국에서 각종 조합에 가담한 독일태생의 적인들은 전통적 코르포라치온을 넘어서 노동자로서의 공속감으로 결속되고 있었다. 외국 협회에 가입한 수공업 적인들은 한결 같이 그들 스스로를 단순히 수공업자로 자처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유대의식을 강조하게 되었다. 1830년대, 7월혁명이 일어난 뒤 10년간 외국의 노동자 취회에 가입한 독일 적인들은 각종 직종이나 직업집단에 따르는 개별운동에는 결코 가담하지 않았다.<sup>31)</sup> 이것은 오랜

25) D. Bergmann, a.a.O., S.462.

26) ebd., S.464-65.

27) W.H. Riehl: Die Bürgerliche Gesellschaft (1866).

28) D. Bergmann, a.a.O., S.467.

29) W. Schieder, a.a.O., S.86.

30) ebd., S.87.

31) ebd., S.85.

세월에 걸쳐 개별적 준프트나 잉농크내에서 단체권적 유대 결합을 이루었던 양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합에는 신분적 요인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신분적—단체권적 규정과 관행을 타파하려는 집단적 내지는 유대의식을 공고히 하려는 추세가 강하였다.

## 3

19세기 초 수공업에 몰아닥친 역경은 봉건적 제관계가 이미 붕괴되고 있으면서 아직도 근대적 제관계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더욱 고통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자유령에 의한 수공업 내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사회적 분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밖으로부터 근대적 산업 시설을 갖춘 영국 제품의 범람으로 그 고통은 심화되었다. 각 업체마다 임금의 저하, 노동시간의 연장, 부녀자와 아동 노동 등이 일반화된 것이 이시대의 추세였다.<sup>32)</sup> 또한 노동의 대가로 물품 지급제도가 도입되어 노동자들은 현금을 구경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기도 하였다. 농촌이나 도시를 막론하고 궁핍 현상이 지배하여 광범한 사회층이 이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대중빈곤에 허덕이고, 그들을 보호해줄 아무런 법적조치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그들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조직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였다.

이에 가중되어 가속화하는 인구 증가는 급격하게 하층민의 궁핍화를 심화시켜 일자리도 없고(Zunftlos) 땅도 없는 파멸적 상황을 초래하였다.<sup>33)</sup> 낡은 신분질서의 사회구조가 동요되고는 있으나 합리화에 기초를 둔 새로운 사회 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과도적 단계에서 대중 빈곤은 당시의 정치가나 교양 시민 계급의 날카로운 관심을 집중시킨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이들에게는 대중 빈곤의 현상이란 전통적 원천적 빈곤과는 다른 사회적 현상으로 반영되었던 것이다.<sup>34)</sup>

이 당시 괴테는 이때까지의 세계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삶의 변화에 경악하면서 이러한 변화의 원인을 기계의 도입에 두었다.<sup>35)</sup>

‘확대하는 기계가 나에게 고통을 주고 불안케 하고 그것은 번개처럼 나타나 긴 세월에 걸쳐 삶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비록 독일이 서유럽 사회보다도 기계적 생산에 토대한 산업 사회로 뒤늦게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18세기 말부터 가속화한 자본주의적 경영이 이미 심대한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고 하층민을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사회 문제를 발생케 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변화에

32) D. Bergmann, a.a.O., S.468.

33) C. Jandke, Der Vierte Stand. Die gestalt. Kräfte der dt. Arbeiterbewegung im 19. Jht.

34) W. Conze, Vom Pöbel zum Proletariat, S.24.

35) J.W. v. Goethe, Wilhelm Meisters Wanderjahre oder die Entsagenden (Werke 25), S.249.



가장 날카로운 타격을 받은 것이 곧 수공업의 세계이다. 이미 수공업은,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매뉴팩처 체제와 경쟁할 수가 없었는데 매뉴팩처 체제는 값싼 가내 노동력을 이용함으로써 소규모 작업장에서 생산한 제품가를 압박하고 수공업 노동이 갖는 고유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이러한 압력은 수공업 직인만이 아니라 독립 경영의 장인층까지 위협하고 그들을 임노동자로 전락시키는 추세가 되었다.<sup>36)</sup> 한편 인구증가에 의한 노동력의 팽창은 이들 수공업자들로 하여금 공장이나 매뉴팩처의 노동 과정에 쉽게 편입할 수 있는 전망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적 하강 과정에서 수공업 직인층은 낡은 코르포라치온이 그들로 하여금 장인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옛 준프리트 규제에 의해서 그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으로 크게 고통받았다. 사회의 어느 구석에서도 수용되지 못한 이들 수공업 직인들이 바로 혁명전 사회적 불만과 소요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이들 직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란 준프리트의 명예감을 포기하면서 단순 노동자로 공장 노동에 편입되거나 다른 가능성이 없는 경우, 박벌이 노동자가 되는 길뿐이었다. 준프리트 공동체에서 추방될 때 이들은 무허가 일꾼이 되어 수공업자의 위신을 상실하고 단순한 임노동자로 전락되어야 하는 사회적 강등에 고통받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한 가능성은 직인만이 아니라 그 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장인계층에도 해당되었다. 영업 증산층은 분해되어 소수 수공업장인들이 소규모 기업가 내지는 공장장으로 상승한데 비해서 절대 다수는 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sup>37)</sup>

사회적 불만과 사회적 긴장의 발효가 심화될수록 수공업자들에 대한 각 영방정부의 통제도 그에 따라 강화되었다. 장인에의 길이 막힌 직인들의 국내외에서의 편력기간은 더욱 장기화되었다. 직인들은 관이 발급하는 편력 기록을 반드시 휴대하도록 강요받고 그들이 숙박, 체류하는 곳에서 반드시 검인을 받는 일이 의무화되었다.<sup>38)</sup> 따라서 자유로운 편력을 위한 이주조차 제한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영방국가의 개별적인 통제만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한 관헌 당국은 독일 연방특별법으로 공동 대처하고자 하였다. 특히 스위스 배른의 슈타인훔플리(Steinhölzli)에서의—티무니없이 과대 평가된—축제가 동기가 되어 1834년, 연방에 소속된 여러 정부는 수공업 직인들의 이른바 “혁명적 음모”에의 가담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방안을 세울 것에 합의하였다.<sup>39)</sup>

36) K. Abraham, *Der Strukturwandel im Handwerker* (1955), S. 78ff.

37) R. Koselleck, *Staat und Gesellschaft in Preussen, 1815~1848*, S. 76.

38) M. Quarck, *Die erste deutsche Arbeiterbewegung* (1924) S. 335f.

39) 1834. 7. 27에 베른 부근의 야외 식당인 슈타인 훔플리에 약 150명 가량 동원된 직인대회가 청년 독일파 베른정부의 주선으로 열렸는데 이에 대해 베른당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다시 독일에 그 소식이 파장되어 보고되었다. W. Schieder, *die Anfänge*, S. 36.

이러한 합의불 기반으로 이룩된 연방결의(1835. 1. 15)는 직인들의 지방 편력이 의례히 조합(Assoziation) 결성이나 노동자 내회 소집과 결부됨으로써 국내외의 공방 질서가 파괴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외 편력을 일체 금지시키고 독일내의 편력도 경찰의 엄격한 감시하에 두기로 결정하였다.<sup>40)</sup> 그러나 연방결의나 연방 입법에도 불구하고 직인들의 실제 행동은 더욱 급진화하는 추세에 있었다. 바이에른 정부가 1808년에 발표한 직인조합에의 가입선서 금지가 5차례나 거듭 천명되었던 점은 수공업자의 준프트적 관행이 끈질기게 유지되었던 점과 관에 대한 저항이 얼마나 강인가를 엿보게 한다.<sup>41)</sup>

억압과 금지에도 불구하고 30년대 직인들이 프랑스를 비롯하여 스위스, 벨지움, 심지어 영국으로의 편력의 물결은 끊이지 않았다. 1840년대에 이르러서 독일 편력 직인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비밀단체들의 노력과 목표는 더 이상 신분이나 영업 각직종에 관한 한정된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절대주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정치적 요구와 결부되기에 이르렀다.<sup>42)</sup>

국외에서 진행된 정치적 급진주의 운동은 국내에 다시 유입되어 경찰의 감시를 피해 잔존한 수공업 조직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과격 사상이 이들에게서 부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각 연방 정부들로 하여금 쉽게 공동 보조를 맞추게 하였다. 독일 연방 37차 회의(1840. 12. 3)에서는 새로이 발각된 정치적 비밀 단체의 조직에 충격을 받고 1731년의 제국추방령(Reichsabschied)과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였다.<sup>43)</sup> 이 법령은 모든 연방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허가되지 않은 직인 단체에 가입하는 일, 직인간의 재판과 배척 선언, 또한 이에 준하는 불법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다. 관련된 직인들은 엄격한 처벌을 받고 편력을 중단하고 즉시 귀국토록 조치하였다.<sup>44)</sup>

1845년의 프로이센의 영업법령은 직인 단체의 창설자에게는 50달러의 벌칙금과 4주간의 금고, 단순 가담자에게는 20달러와 14일이 각각 과해지게 되었다.<sup>45)</sup> 보다 나은 노동조건을 획득하려는 국내에서의 단순한 노력조치 관헌의 체포와 구금으로 위협되었으므로 이들 직인들은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을 국외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국외에서 이들 편력 직인을 결속시킨 것은 혁명전에 떨어진 갖가지 정치적 소요에 관여하였다가 독일을 빠져나온 학생, 대학 강사, 신문기자 등의 지식인들이었다. 교양시민 계급과 소유시민 계급 출신인 이들 지식인들은 스위스,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 활약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독일 혁명을 영도할 지도자 사회층이라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지식인들

40) W. Schieder, die Anfänge, S. 87, 1835년 3월의 바덴정부의 요청으로 연방의회는 그해 1월의 결의문 강력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41) P.H. Bopp,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Handwerksgesellentums im 19. Jht. (1932), S. 77.

42) ebd., S. 58-59.

43) M. Quarck, a.a.O., S. 337ff.

44) P.H. Bopp, a.a.O., S. 60.

45) Ludwig von Rönne, Die Gewerbepolizei des Preussischen Staates 2. Bd. (Breslau, 1851), in: P.H. Bopp, a.a.O., S. 60-61.

은 처지가 일정하지 않고, 외국에서 학업을 계속하며 일자리를 얻어 장래의 학문적 직업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편력직인과 함께 수공업 수업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직인과 함께 이들 지식인들도 전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었다.<sup>46)</sup>

넓은 단체권적—신분제적 보호가 사라진 뒤에 그들 스스로의 새로운 결속이 필요하였던 편력 직인들을 규합하고 조직하는 역할을 이들 지식인들이 담당하였다.

외국에 있는 독일의 편력 직인의 수가 어느 정도인가하는 문제는 통계 자료의 미비때문에 정확성을 기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당시 주민수나 외국인의 수는 과장되어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 성과는 스위스에서 1837년 쾰히의 외국인 거류민 6,366명 가운데 독일인이 1,611명을 차지하고 주마다 거의 1,000~1,500명이 거주하여 30~40년대 스위스 전체에는 약 10,000명의 독일계 직인이 거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47)</sup> 프랑스 파리의 경우에도 이 도시가 독일인에게는 '독일의 내륙 도시 deutsche Binnenstadt'로 불리울 만큼 많은 직인들이 쇄도하여 당시 보고는 그 수를 과장 보고할 정도이다. 그러나 파리에 실제 거주한 독일인 수공업자의 수는 15,000~20,0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sup>48)</sup>

영국 런던의 보고도 1830년부터 1848년까지 약 20,000명으로 과장보고되고 있으나 독일 상인과 그 보조원의 수가 많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독일수공업 직인은 10,000명을 넘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sup>49)</sup>

이들 편력 직인들은 일자리를 구하여 각국의 다양한 제조 분야에 편입되었으나 외국에서의 그들의 노동 조건은 본국의 그것과 차이가 없거나 열악하였다. 그 이유는 산업화의 선두 주자인 영국을 제외하면, 본격적인 공장제도가 아직도 도입되지 않았으므로 소규모 경영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이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들 직인들 가운데는 해당국의 노동자 임금의 1/2이나 1/3의 품값으로 취업함으로써 현지 노동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치는 경우도 있었다.<sup>50)</sup> 편력이 가진 원래의 목적은 젊은 수공업자에게 몸으로 방랑을 맛보게 하고 여행심과 모험심을 자극하는 오랜 전통과 결부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장차 그 자신의 개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sup>51)</sup> 그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당시 파리나 런던에서 돌아온 직인들은 몇 마디 외국어를 구사하기가 일쑤이고 파리에서 돌아온 직인들이 현지의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파리의 장인'이란 간판을 내걸고 영위하고 있음을 이 시대의 보고는 전하고 있다.<sup>52)</sup> 당시 파리는 모든 '영업의 대학'

46) F. Schnabel, Deutsche Geschichte im 19. Jht. (1933), S. 202ff.

47) W. Schieder, Die Anfänge, S. 96-97.

48) ebd. 당시 파리 인구가 80만에서 100만 정도인데 비해 독일계 거류민은 8만을 헤아리고 있다.

49) ebd. S. 98.

50) 당시 독일에서는 하루 13~14시간 노동에 3.5탈라(15프랑)인데 비해 파리에서는 10시간 노동에 28~35 프랑의 임금이였다.

51) P.H. Bopp, a.a.O., S. 67.

52) ebd., S. 68.

으로서의 구실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과 세계를 호흡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모든 직인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허용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여 대다수는 영세화한 삶을 이어가기가 고작이었다.

망명 지식인과 직인들이 결합하여 초기 노동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수공업자를 정치적으로 결속시킨 이데올로기는 급진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들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결속된 조직들은 당시 프랑스의 정치단체가 그랬듯이 비밀결사의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파리에는 '독일 망명자 동맹(Bund der Geächteten)', '스위스에는 청년 독일 동맹(Junges Deutschland)'과 함께 '정의자 동맹(Bund der Gerechten)' 등이 조직되어 그 정치적 목표는 독일의 절대주의 군주권을 타도하는데 있고 다가올 혁명을 위한 이론무장을 갖추는데 있었다.<sup>53)</sup>

외국에서 전개된 이들 운동이 독일만을 위한 국한된 민족 운동인가 아니면 보다 넓게 국제적 성격을 띤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당시 반동 체제의 총수 메테르니히(Metternich)는 외국에서의 독일 수공업 직인과 망명객들의 운동이 전체 유럽적 혁명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들의 운동이 파리에 중심을 둔 혁명 프롤레타리아트의 일부라고 과대 평가하였다.<sup>54)</sup>

이러한 관점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엥겔스에게도 받아들여져 독일 노동 운동사를 해석하는 마르크스-레닌의 관점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메테르니히에 의해서 혐의가 가해진 국제적-이데올로기적 결속성이 노동운동의 실제로 해석 되기에 이르렀다.<sup>55)</sup>

이러한 해석이야 어떻든, 또한 이들의 운동이 비록 프랑스나 폴란드, 또는 스위스의 정치 운동과 접촉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독일사회의 현실과 수공업 문제에서 비롯된 상황적 운동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독일 수공업 직인들이 다른 어느 곳보다 먼저 정치 운동에 가담한 곳은 이미 언급한 대로 갖가지 사상과 운동의 연원지인 파리였다. 수공업 직인들에게는 7월혁명이 끝난 직후에 결성된 '독일 인민 협회(Deutscher Volksverein)'에 가담한 것이 정치조직에 참여한 그들의 첫 경험이였다. 이 협회의 목표가 통일과 민주 헌법을 제정하는 데 있고 사회적 불평등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데 있었으므로 상인, 보조원, 학생, 자적인들의 다수가 이에 참여하게

53) E. Schraepler, *Handwerkerbünde und Arbeitervereine 1830~1853*, S. 29f.

54) E. Schraepler, S. 30, W. Schieder, *Anfänge*, S. 156.

55) F. Engels, *Zur Geschichte des Bundes der Kommunisten*, in: MEW 21, S. 206f. 마르크스-엥겔스의 이론에 뒤따라 E. Engelberg와 K. Obermann 등 동북사가들도 그속에 이미 오늘날의 <노동자 계급>의 사회적 결속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K. Obermann, *Die Deutschen Arbeiter in der Revolution von 1848* (1933), S. 50ff.

되었다.<sup>56)</sup> 그러나 인민 협회는 곧 프랑스 관헌의 탄압으로 와해되고 와해된 폐허 위에 새로이 결성된 것이 곧 ‘망명자 동맹’이었다.<sup>57)</sup> 동맹의 일반적 목표는 ‘독일의 해방과 재생 및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밝히는 기본법’을 실현하는데 있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는 ‘치욕적인 노예 상태로의 복귀를 저지’하는데 두었다. 다시 목표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사회적, 정치적 평등, 자유 시민의 덕목을 높이고 민족의 통일을 독일의 언어와 관습에 속한 지역에 우선 실현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구상의 모든 다른 민족들에게 확대시키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망명자 동맹이 독일적 운동을 확대시키고 그 토대 위에 유럽적 운동을 진감하였던 것은 확실하다.

다양한 사회 계층과 함께 망명자 동맹에 가담한 독일 수공업 노동자들은 조직의 하위 세 포를 구성하였고<sup>58)</sup> 비밀 유지가 절대적 의무로 규정되었고 조직 배반은 사형으로 위협받게 되었다.

동맹의 상층 지도부는 독일에서 추방된 학생, 편집자, 대학 강사들이 차지하였고 이들은 바로 ‘인민 협회’를 이끌어 가던 지적 엘리트들이었다. 동맹지인—『망명지』 *der Geachtete* 가 간행되어 기본 이념으로서 공화주의 노선을 명백히 하고, 국가형태의 변화와 함께 인간의 보편적, 시민적 평등의 조건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었다.

법학도이면서 부르쉴샤프트 운동에 가담한 전력을 가진 베네디(J. Vendy)를 비롯하여 동맹의 지도자들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현실 문제에 대응하려고 하였다.<sup>59)</sup>

동맹의 다양한 이데올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통점은 독일을 보다 자유로운 나라로 건설하는 일이었다. 독일 관헌에 의해서 체포된 편력 직인에 대한 신문내용에 의하면 그들의 목표가 대체로 자유와 평등의 요구를 국제화시킬 수 있는 국가 체제를 실현하는데 있었던 것이 밝혀진다. 그러나 직인들사이에 불리워진 직인 가요는 자유의 요구보다는 평등의 요구로 점차 그 강조가 바뀌어지면서,

명예로부터 우리들 놓여나서  
평등에 만세 부르러!  
만세, 만세!  
평등이 게 있다.

56) E. Schraepfer, a.a.O., S.41. 이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일에 종사하면서 부유한 층을 먹여살리는 데도 불구하고 수공업자, 공장 노동자, 농민이 가장 가난하고 불행하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다.

57) ebd., S.42. 비밀결사로 출발한 「망명자 동맹」을 바뵈프(G. Babeuf)의 친구이며 공동투쟁가였던 F. 부오나로티(Buonarroti)의 비밀단체인 Charbonneri démocratique universelle의 강령에 의존하고 있었다.

58) ebd., S.43.

59) ebd., S.44~45. 베네디는 기독교적 공화주의 사상을 가진 라메네(Felicité de Laménais)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하고 노동가를 부른다.<sup>60)</sup>

30년대 파리 비밀동맹에 가담한 수공업직인들은 사회적으로 급진화하여 단순하게 사회적 공화국을 요구하고 있어 완전한 체계를 갖춘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사회민주주의의 노선을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sup>61)</sup>

1838년에 이르러 가입자 다수에 의해서 그 명칭에 대한 반대가 제기되었다. 반대자들은 ‘낭명자 동맹’보다 ‘독일 동맹’이라는 명칭을 요구함으로써 단체의 분열이 야기되었다. 새로운 조직은 ‘정의자 동맹(Bund der Gerechten)’으로 발족되어 소수만이 ‘낭명자 동맹’에 잔류하게 되었다.<sup>62)</sup> 정의자 동맹은 바뵈프(Babeuf)의 사상을 계승하고 블랑키(Blanqui)와 바르베(Barbés)가 이끄는 ‘프랑스 계절회(Société des Saisons)’의 지부로서 그 활동을 전개하였다.<sup>63)</sup> 그러나 초기에 동맹의 목표는 ‘지속적 노예화로부터 해방하는 데 대한 힘력,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확보하는 기본원리의 실현’에 두어 낭명자 동맹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상층 지도부의 권한을 줄이고 기본 세포를 10명의 구성원을 단위로 하는 공동체를 기초로 하여 운영하였던 점이다.<sup>64)</sup> 따라서 이 동맹은 민주적인 공동결정을 토대로 하여 지도부가 운영되었고 각 구성원은 법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게 되었다.<sup>65)</sup>

여기에 가담한 구성원들은 극히 소수의 지식인이 참여하였을 뿐 대다수는 공장 노동자가 아닌 프롤레타리아화된 수공업 직인들이었다. 이들은 압도적으로 낮은 관습에 의지하여 준프트의 관념세계에 집착하여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 검소한 수공업자의 생활을 이룩하려는 소시민적 희망을 저버리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집단을 구성한 이들의 요구는 강경하여 압제와의 투쟁에서 정의의를 외치는 동맹의 노래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sup>66)</sup>

민중에게만, 민주의 성스러운 권리에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역량은 바쳐지는 것  
우리는 기만의 왕관을 쓴 노비를 증오하고  
정의를 위해 냉혹하게 싸우리라  
정의는 우리 동맹의 상징  
형제들의 정의는 확고한 유대.  
우리가 한번도 물러서보지 않는 정의여!  
투쟁의 목표는 민중과 조국이어라  
정의는 우리의 완전한 투쟁

60) W. Schieder, Anfänge, S. 201.

61) ebd.

62) E. Schraepler, a.a.O., S. 50.

63) K. Obermann, a.a.O., S. 50.

64) E. Schraepler, a.a.O., S. 52-53.

65) ebd., S. 53.

66) W. Schieder, Anfänge, S. 46, E. Schraepler, a.a.O., S. 54.

전쟁에서의 정의가 신호이며  
 민중의 구원과 폭정의 타도를 위해  
 정의의 칼을 냉혹하게 휘두르노라!

이들은 생시몽주의자와 루리에주의자나 다른 프랑스 사회주의자들의 저술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무장하여 독일 여러 국가 주민의 정치화와 혁명화를 촉구하도록 결속하였다.

이 시기 동맹의 이론가로서 프랑스 사회주의의 영향속에서 독자적 사회주의 사상을 발전시킨 것은 곧 바이틀링(W. Weitling)이었다. 마그테부르크의 양복공으로서 방명자동맹의 참가자였던 그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편력 뒤에 파리에 돌아와서 정의자 동맹에 가담하여 그 조직의 지도자로 부각되었다. 그는 이미 프랑스와 영국 사회주의 체계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 라트네, 푸리에, 오엔 등을 스승으로 대한 그는 이들 사상을 넘어 프롤레타리아적, 즉 화해될 수 없는 계급대립에 토대를 둔 공산주의로서 인도적 사회주의를 대체하고자 하였다. 바이틀링의 사상에 의해서 시민계급 출신의 반항운동과는 명백하게 다른 '정의자 동맹'의 이데올로기의 명확성이 드러나 소책자에 이렇게 담고 있다.<sup>67)</sup>

공화국과 헌법의 이름은  
 그토록 아름다우나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가난한 민중은 아무것도 먹지 못해  
 육체를 위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늘 고통받네  
 그로 인해 다음 혁명은  
 보다 낫기 위해 사회혁명이 되어야 하네

그가 지은 '인간 그가 어떤 상태이며 어떤 상태에 있어야 하는가' (Menschheit, wie sie ist und wie sie sein sollte)는 바로 최초의 「독일 공산당 선언」이라고 불리워진다.

이러한 이론 무장을 갖춘 정의자 동맹의 이념이 독일에 침투되어 할부르크에서 그 동조자를 얻고 다시 프랑크푸르트와 마인쯔에서도 많은 동맹참여자들이 혐의자의 명단에 기록되기에 이르렀다.<sup>68)</sup>

그러나 파리의 정의자 동맹은 1847년 마르크스가 참여하면서 해체되고, 그 잔여 부분에서 공산주의 동맹이 조직되어 그 활동부대의 중심을 영국으로 옮기지 않을 수 없었다.

바이틀링의 사상적 영향이 보다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스위스에서였다. 프랑스에서 독일 수공업 직인들이 망명자 동맹이나 정의자 동맹으로 정치화과정을 겪고 있는 같은 시기에 스위스에서는 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독일 등지에서 몰려온 망명 혁명가들이 선두에 서서 그곳에 편력해 온 직인들을 급진적 민주주의 이념으로 길속시키고 있었

67) W. Schieder, a.a.O., S.203.

68) K. Obermann, a.a.O., S.77-80.

다. 독일 직인들이 참여한 '청년 독일파'도 국제적 비밀 단체인 '청년 유럽파'와 나란히 하여 민주적으로 통치된 유럽속에서 해방된 독일을 국민 공화국으로 전환시킬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바이틀링이 스위스에 출현함으로써 이곳에 있는 독일 수공업 직인에 대한 공산주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선전 활동이 몇개의 칸톤에서 전개되었다.

바이틀링은 끊임없이 노동자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나 그의 관심의 초점은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는 결코 아니었고 궁핍한 수공업자들이었다.<sup>69)</sup>

그러나 당시 수공업 직인들은 프랑스 혁명의 부르조아 저항운동을 단순하게 평가하여 정치적 자유가 사회적 평등이 쉽게 결합할 수 있다는 소박한 생각에 젖어 있었다. 이미 '시민 왕'이 통치하는 프랑스 현실을 통찰한 바 있는 바이틀링은 이들의 환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모든 착취하는 세력이 배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여러 수공업자 협회를 정치화하기 위해서 말과 글로서 선전활동을 계속하였다. 당시 수공업자들은 귀국후에 그들이 받게될 혐의와 불이익 때문에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극도로 기피하였으나<sup>70)</sup> 바이틀링이 이끄는 '정의자 동맹'의 스위스 지부는 공산주의 사상을 적극 선전하였다. 따라서 일반 선거권, 배심제판, 언론의 자유 등의 민주적 요구를 독일 통일의 논의와 결부시킨 '청년 독일파'와는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이틀링에게는 민족에 대한 고려보다는 종교적, 물질적 이해관계가 중요시 되었고, 쾨프트에 기초한 그의 사상체계는 수공업자와 식자계급을 동급으로 간주하기에 이르러 커다란 유인력을 가졌다.<sup>71)</sup> 수공업 직인들을 결속시킨 '정의자 동맹'도 1843년 바이틀링이 강제로 스위스에서 추방당함으로써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 4

해의에서 편력 직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자조직과 노동운동과는 달리 혁명전 독일내에서의 노동운동의 양상은 어떠했는가?

30년대의 정치적 상황으로 급진적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정치운동은 거의 불가능하였고 출판물 검열도 메테르니히 치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마르크스가 편집하는 '신 라인신문'이나 루게(A. Ruge)가 편찬한 '독일 연감'은 강한 탄압을 받고 있었다. 연방의회는 1836년에 모든 결사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각 연방정부도 정치 집회나 결사를 일체 금지시켰고 비밀단체에 대한 검찰의 감시도 강화되었다.

69) E. Schraepfer, a.a.O., S. 56.

70) P.H. Bopp, a.a.O., S. 82. 당시 스위스의 「청년 독일파」를 이끌던 마르(Marr)와 같은 지도자는 공산주의가 통용되면 개인의 자유가 살육된다고 강렬한 반 공산주의 이념을 내걸고 있었다.

71) E. Schraepfer, a.a.O., S. 58. 당시 「청년 독일파」의 공화주의 이상에 대해서 바이틀링의 사상은 이미 노동과 재화의 사회화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공업 직인을 결속하는 급진 민주주의의 선동은 비밀리에 확대되어 노동자 조직에 침투하였다. 당시 노동자 조직은 대체로 '지원협회(Unterstützungsverein)'와 '노동자 교육협회'를 비롯하여 갖가지 명칭으로 전개되었다. 베를린의 '금주협회'와 '수공업 교육협회', '키일의 '영업협회(Gewerbeverein)', 만하임의 '수공업 협회', 블레슬라우의 '노동자 협회' 등은 처음에는 정치적 목표를 내건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노동자들의 교육과 교양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베를린의 수공업 협회는 '노동자들의 정신적, 도덕적, 사교적, 영업적, 국가적 생활의 민중적 발전을 가르치고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특정한 종교적,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하다'고 창설취지를 밝히고 있다.

물론 이러한 온건한 목표 설정은 관헌의 감시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면, 관변층에서도 이들 협회를 통해서 젊은 층을 국가가 보다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조직은 확대일로에 있었다.<sup>72)</sup>

강연, 수업, 체육, 토론 등의 활동이외에 직인들의 동질적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는 고향의 노래나 민요 부르기, 예술적 취미활동 등이 활동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순수한 교양활동 속에서도 이 시대 특유의 정치, 사회 문제가 제기되고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어 협회의 일원이었고 뒤에 노동운동의 지도자가 된 슈테판 보른(Stephan Born)은 이 조직을 가리켜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혁명가의 양성소'였다고 회고하고 있다.<sup>73)</sup>

그러나 혁명전 수공업 직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각종 단체들이 구체적이고 확고한 정강을 갖고 결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들 조직들이 오직 직인계층에 의해서만 구성되었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산업이 가장 발달한 베를린의 경우조차 예외일 수 없다.<sup>74)</sup>

당시 베를린의 수공업 종사자들의 구성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인 수를 압도하는 장인 수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1854년의 통계에 의하면 24,499명의 직인 수에 대비되는 21,748명의 장인 수는 곧 아무런 보조노동력을 갖추지 않은 단독 수공업자의 영세화를 입증한다. 다시 통계는 노동자계층으로 표시된 사회계층 중 10%의 수공업 장인, 9%의 직인과 도제, 33%의 독립 수공업자, 그 밖에 28.5%의 다양한 일자리를 갖거나 그렇지 못한 날품팔이, 12.5%의 공장 노동자, 7%의 상업과 교역 종사자들이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수공업자가 52%를 차지하고, 공장 노동자의 대부분도 수공업자 출신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국, 노동자 계층의 사회적 구성요인을 알 수 있다.<sup>75)</sup>

72) 베를린 수공업 협회의 구성원은 조직된 첫 해에는 몇몇 시민 외에 87명의 장인과 1,254명의 직인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다음해에는 직인의 수가 1,984명으로 증가한 반면, 장인의 수는 불과 7명이었다. 비인의 노동협회는 직인 2,000명에 공장 노동자들은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P.H. Bopp, a.a.O., S. 89.

73) St. Born, Errinerungen eines Achtundvierzigers (1898).

74) C.F.W. Dieterici, Mitteilungen des Statistischen Bureaus in Berlin, Bd. 1 (1848), S. 68ff. zit. von E. Schraepfer, a.a.O., S. 298.

75) ebd.

물론, 이 당시 수공업 수업을 거치지 않은 미숙련 노동자들이, 도시로 유입된 농촌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광범위한 하층민을 구성한 반면, 이 시대 노동자계급을 형성한 사회적 원천은 곧 숙련된 수공업 직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76)</sup>

따라서 사회적 변혁의 주체로서 계급투쟁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이른바 ‘산업 프롤레타리아’는 시대가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이어서 수공업 직인으로 구성된 노동계급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sup>77)</sup>

4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농촌에서 이주하는 인구 압력으로 극심한 주거난, 실업사태가 가중되어 베를린 시당국 예산의 거의 40%가 빈민 지원을 위해 지출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궁핍으로 베를린시의 민중 동태가 불안한 것은 확실하나 그렇다고 이들이 혁명에 적극 가담할 상황은 아니었다.<sup>78)</sup> 체제를 부정할만한 노동자들의 적극적인 계급의식은 아직 형성될 수 없었다.

초기에 있어서 수동적이었던 직인 노동자들은 48년 혁명이 다가올수록 그들의 조직과 행동은 적극화되고 여러 차례에 걸친 베를린 나염공의 파업은 다른 생산부문이 아직도 수공업 노동을 대종으로 했던 데 비해 비교적 일찌기 기계의 도입으로 산업화과정의 노동운동과 결부된 경우로 드러난다.<sup>79)</sup> 기계화와 대량생산의 위협에 직면한 나염 직인들은 이미 임금상, 노동시간의 단축, 기계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표시하기에 이르렀다.

혁명의 해인 1848년 독일에서 일어난 수많은 파업에 수공업 직인들이 참여하였고 혁명적 요구가 노동자와 영세화한 수공업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이들의 요구가 사회정책적 내지는 경제적 개선을 함축하고 있으나, 이들을 계급의식으로 무장된 근대적 프롤레타리아트로 간주하기는 어렵다.<sup>80)</sup>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의 사회적 적대감을 드러낸 직인들의 정치적, 사회적 시각은 도덕경제(Moral Economy)를 토대로 한 소시민층의 정치적 요구와 구분되기 어려운 것이다. 노동자, 수공업 직인, 소시민층은 시민적 중산층에 의해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국가체제의 개편이 요구된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한걸음 더나가 사회제도의 근본적 개편까지 요구하였다. 1848년의 한 잡지는 이들의 요구를 이렇게 대변하고 있다.<sup>81)</sup>

‘공화국은 형식이며 사회주의가 목표인 것이다. 정치적 혁명의 목표는 모든 국가시민에

76) L. Baar, *Die Berliner Industrie*, S.179ff. 이 시대 공장노동자들은 직인 노동자들보다 의식적으로 온건한 양상을 들어내고 있다.

D. Bergmann, a.a.O., S.465.

77) D. Bergmann, a.a.O., S.468.

이 시대 공장노동자들은 직인노동자들 보다 의식적으로 온건한 성향을 들어내고 있었다.

78) ebd.

79) ebd., S.469.

80) ebd.

81) H. Krause, *Die Demokratische Partei von 1848 und die soziale Frage* (1923) 148/149.

1848년 6월 28일자 Der Deutsche Zuschauer 안에 실린 「사회적 공화국」이라는 글에 쓰여진 것이다.

게 확대되는 자유이다. 그러나 사회혁명의 목표는 모든 국가시민에게 확대되는 복지이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노동운동에 가담하였던 소수의 의식적이고 정치적으로 앞장선 수공업직인들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하층민—아직도 명확한 형태를 갖춘 것은 아니었으나—의 해방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의식이 양성되었다. ‘노동형제단’과 더불어 베를린의 ‘노동자 교육협회’의 영향은 초기 노동운동만이 아니라 이 시대 베를린 정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sup>82)</sup>

쉬테판 보른이 소속되었던 베를린 노동자 교육협회는 제도권이 묵인하거나 개입한, 합법적이고 비정치적 역할을 넘어서서 베를린 각계 사회층—시민 계급과 소시민층—의 급진적인 정치역량을 결집하고 노동자—직인 노동자와 공장 노동자—들을 계급의식으로 결속하는 구심 역할을 다였다.<sup>83)</sup>

베를린 수공업 협회의 창설은 이미 살핀바와 같이 1830년 후반까지 소급되는 것으로서 처음에는 당국의 노력으로 주도되었으나 장인들의 저항으로 실현되지 못하다가 1844년 4월에 한 주막에서 드디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끊임없이 수요에 가담하려는 직인들을 교양 강화하여 정치적으로 반항하는 이들을 체제속에 길들이고 이들의 정신을 ‘불타는 화염’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당국이 바라는 협회 설립의 목적이었다.<sup>84)</sup> 위협시되는 직인들을 추방하고 길들여진 노동자들의 일반 교양을 위한 기구로 삼고자 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의자 동맹’에 가담하였던 투사들이 비밀리에 직인 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3월혁명의 희생자 중 상당수가 수공업 협회원이었다는 사실은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는 실천적 요구가 무엇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sup>85)</sup>

한편, 비밀단체인 ‘정의자 동맹’은 전독일, 적어도 동부 독일에 걸친 초지역적 조직으로 발전하였고 그 핵심 요원은 국외에서 활동하였던 인물로서 구성되었다. 1846년, 베를린의 직인과 노동자 수가 52,000명인데 비해서 동맹의 가담자가 25~30명에 불과하였으나 투쟁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이들 전위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대중 운동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1848~49년의 혁명으로 노동자 교육협회는 이때까지 비합법적인 비밀 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나 계급을 결속시키는 공식적 단계에 들어서게 되었다.<sup>86)</sup> 그러나 각종 정치단체가 정치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계급은 독자적인 정당을 결성할 수 없고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 대표를 파견할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정치적 소양이 결핍되었고 그들 스스로의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제시할 수 있는 독자적인 계급으로서의 의식도

82) D. Bergmann, a.a.O., S. 468.

83) St. Born, Erinnerungen 120, S. 136f.

84) P.H. Bopp, a.a.O., S. 63.

85) 프리드리히샤인에 문헌 혁명희생자 183명중 153명만이 신원이 확인되었는데 그중 63명이 직인, 도제가 5명. 공장노동자가 15명으로 나타났다. Bernstein과 Friedensburg은 노동자들의 혁명 참여율을 88~90%로 평가한다. D. Bergmann, a.a.O., S. 482 Anm. 91.

86) F. Balsler, Sozial-Demokratie... S. 12.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sup>87)</sup> 이러한 상황에서의 노동운동은 다른 시민정당이나 정치조직과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일까? 혁명초기의 노동운동은 대체로 소시민적—급진민주주의의 정치노선과 밀접하게 결부되었고 그들은 민주주의 체제가 실현된다면 그들의 사회—정치적 요구가 당연히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의 정치적—사회적 평등의 지위가 제도—정치적 토대위에서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sup>88)</sup> 노동정제단이 민주정당과 결속되어 노동자들이 혁명적 적대감정없이 민주국가에 편입됨으로써 그들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의 노선과 결부되는 것이었다.<sup>89)</sup> 노동계급과 좌파 자유주의 노선에 가담한 소시민층과의 결속은 60년대나 70년대까지 유지되고 양측의 연합대신에 노동자 계급의 독자적 계급투쟁은 19세기 후반에 가서야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91)</sup>

따라서 1848년 혁명에 가담한 수공업 직인의 대다수는 계급투쟁의 가치 보다는 급진 민주주의 노선에 가담하여 소시민층과 결속하여 투쟁전선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 때 중산 계급은 직접 바리케이드전에 참여하기보다는 배후에서 물질적으로 지원하였고 혁명 투쟁의 일선에서는 수공업 직인으로 구성된 노동자 계급의 투쟁과 희생이 표면화하였다.

혁명에서 희생된 자와 혁명후 관에 의해서 추적된 정치적 도피자들의 대다수가 바로 수공업자들이었다는 사실은 혁명의 주역으로서의 이들의 역할을 부각시킨다. 혁명이라는 급격한 상황에서 각계 각층으로 구성되는 민중의 형제애가 결속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의 이념이 실현될 것이라는 고양된 기대가 충만되어 있었다. 그러나 수공업 직인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계급이 소시민층이나 지식계급과 함께 결속되었던 민중주의는 혁명의 와중에서도 날카롭게 긴장과 대립을 내포하고 있었다.

노동자 계급과 소시민층은 혁명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속에서 분열을 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월 22일에 발간된 좌파 민주주의 노선을 대변하는 한 신문(Berliner Zeitungs-Halle)은 열광된 형제애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제적 원인 때문에 양자의 분열이 확대될 것이라고 적고 있다.<sup>92)</sup>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와 프로이센 의회에 파견할 의원 선거권에서는 이미 자유주의자와 민주주의자의 타협될 수 없는 분열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혁명의 기운이 확대될수록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립이 격화되고 정치 혁명을 사회혁명으로 확대시키려는 요구가 강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87) W. Conze, Der Beginn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S. 335.

88) ebd., S. 333.

89) D. Bergmann, a.a.O., S. 480.

90) M. Quarek, Die erste deutsche Arbeiterbewegung. Geschichte der Arbeiterverbrüderung 1848/49 (1924), S. 133.

91) D. Bergmann a.a.O., S. 481.

92) Berliner Zeitungshalle, in: A. Wolff, Berliner Revolutions-Chronik Bd 1.

그러나 의회에 진출한 좌파 민주주의파 의원이 상당한 사회정책적 요구를 제기하고 있으나 그들이 관심을 집중시킨 중요 안건은 자유와 동일, 기본권과 헌법에 대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sup>93)</sup>

3월혁명의 연구가 발렌틴이 지적한 대로 ‘이 시대가 의회와 제도를 위한 신념의 시대’였기에 이들도 우선은 제도와 틀을 만들어 내는 일이 결국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느끼고 있었다.<sup>94)</sup> 이것은 비단 이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수공업자 대부분도 이러한 정치추세에 동조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출판의 자유(Pressfreiheit)보다 먹는 자유(Fressfreiheit)를 내걸고 중첩된 사회문제나 노동자 문제가 노정되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려는 어떤 대책이나 정책도 마련되지 못하고 결집된 이데올로기도 제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sup>95)</sup>

앞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수공업 장인과 직인들은 혁명전부터 이미 급진민주주의 노선에 가담하여 초기 노동운동의 선봉에 서서 혁명의 시기를 대기하고 있었다. 혁명의 폭풍우가 닥치기 전, 1840년에 결성된 수공업자 동맹, 특히 베를린의 수공업자 동맹은 이미 체제반항적 운동의 전위역할을 맡았고 이 조직체 속에서 혁명의 투사들이 배출될 수 있었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행진, 시위, 진정서 제출 등의 활동을 통해서 저항적 민주운동으로 결속된 사회층이 수공업자들이었다는 점은 소시민층에 의해서 추구되는 급진 민주주의에 수공업 노동자들도 폭넓게 가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96)</sup>

그와는 반대로 첨단에 선 의식적인 노동운동의 선봉자를 제외한 수공업 직인의 대다수는 전통에의 충실, 준프트의 의식과 상징에 의한 결속, 장인이 될 기대감에 시종하여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을 발전시키거나 정치적 노동운동과 연결되지 못하였다.

혁명 전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가담한 수공업자들도 직종별로 보면, 직조, 제화, 양복, 가구, 자물쇠 등 직종에 속한 수공업자들로서 이들의 고통이 다른 직종 종사자들보다 심각한 것을 보여 준다. 이 업종에 소속된 직인들은 이미 혁명전에 기계파괴나 작업장 파괴에 가담하였고 1844년 실레지엔 직조공들의 봉기(Weberstand)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sup>97)</sup> 혁명전선의 선두에 선 수공업자만이 아니라, 독일의 거의 모든 지역의 수공업자들이 그들의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초지역적 조직으로 결속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전 독일 수공업자 예비회의가 48년 6월 2일부터 6일까지 함부르크에서 열리고 본

93) E. Schraepfer, a.a.O., S.304. 노동자들도 마러케이드의 마술만을 선봉한 것이 아니라 의회와 헌법이 가져다줄 결과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어떤 대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조직과 집단 행동에 의한 결속을 그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을 약속할 것으로 믿었다.

94) V. Valentin, Geschichte der deutschen Revolution Bd. II, S.482.

95) H. Meusch, Die Handwerkerbewegung 1848/49 (1949), S.30.

96) J., Bergmann, a.a.O., S.339. Anm. 37.

97) D. Bergmann, a.a.O., S.467.

98) Weberaufstand에 대해서는 K. Obermann, Einheit und Freiheit (1950), S.202-206 참조.

회의가 같은 해 7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렸다. 함부르크 회의에서는 몇명의 직인도 참석하였으나 회의 진행중 한 발언자(장인 대표)는 수공업 직인의 변화된 신분 의식을 고발하면서 그들을 회의에 동석시킬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99)</sup>

오늘날 직인들은 직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노동자로 불리워지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권리를 잘못 인식하고 말았다. 직인, 도제 그리고 장인은 함께 수공업자를 형성하며 곧 하나인 것이다. 직인들이 스스로 노동자로 자처하면서 그들은 한층 낮은 단계에 처하게 되었다. 옛 질서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 수공업의 전성기에는 직인과 도제는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분리되어 보다 높은 임금을 바라고 있다.

이 발언속에는 이미 장인, 직인간의 분화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수공업 장인의 전통적 멘탈리티가 역력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대회의 기본노선을 이끌어 갔던 빙켈브레히(Winkelbrech) 교수는 장인과 직인사회가 경제적 통일체를 이루고 48년 혁명에서 보인 것과 같이 양측의 정신적 합의를 강조해 마지 않았다.

그러나 프랑크푸르트 수공업 회의는 직인들이 장인들과 함께 바리케이드전에서 싸우고 혁명을 완성한 공은 인정하였으나, 그들의 대표권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한 발언자는 직인 대표는 집에 가서 조용히 기다리고 발송될 회신을 기다리라고 권하고 장인들이 바로 그들 직인의 이익을 대표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일부에서는 직인의 참가를 요구하고 직인대표를 참석은 시키되, 의결권은 허용될 수 없다는 발언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장인과 직인간의 가부장적 유대를 역설하면서 그들의 대표권을 인정하지 않고, 회의를 떠나도록 의결하였다.<sup>100)</sup>

## 5

혁명전과 혁명진행중 수공업 직인들의 노동운동은 아직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을 받아들이기에는 낡은 요소와 새로운 요소가 구분되지 않고 잡다한 이데올로기가 뒤엉켜 있는 상황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데올로기의 혼란은 시대착오적인 준프트의 낡은 개념과 함께 사회주의의 전진적 요인 등이 중첩되어 있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근대적인 의미의 결집된 노동계급과 노동운동을 토대로 하여 수공업 직인 노동운동을 관찰하려는 입장과 결부된 것으로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노동자 계급형성에서 전통적 요인과 혁명적 요인간의 관계는 보다 깊이있는 해명과 해석이 요구된다. 단순히 양자의 병존이란 불만스러운 것이다. 이 시대 자체의 상이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누차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시대는 공장 노

99) Verhandlungen des ersten deutschen Handwerker- und Gewerbe-Congresses (1848. 7. 14~8. 18) 16.

100) Verhandlungen 19, 21, 22 직인대표들이 회의에서 떠나야 한다는 결정이 49:13의 표결로서 결의되었다.

동자의 열세라는 상황에서 낡은 도덕 경제와 준프트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수공업 구성원들이 정치적·사회적 항의를 제기하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는 수공업 직인의 노동운동이 압도적으로 소시민적 요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시민층과 노동자 계급의 분화가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집된 민주주의가 노출되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 소시민적 민주주의와 수공업적 사회주의 노선이 거의 같은 궤도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서 이 시대 자유주의에서 제외된 정치적 급진주의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 Die Arbeiterbewegung der Handwerker Gesellen

Min-Ho, Lee

An der Märzrevolution beteiligten sich die verschiedenen Schichten des Volkes, in denen die Dominanz der Arbeiter durchweg ausgeprägt war. Die Arbeiter, die während der Revolution in Straßenbarrikaden und Protestversammlungen teilgenommen hatten, sind keine moderne Industriearbeiter, sondern meistens Gesellenarbeiter. Industrialisierung war noch nicht ganz in Deutschland eingeführt. Gerade in Anfang.

Schon im Vormärz hatte nicht nur der Pauperismus und die Bevölkerungszunahme dem Handwerk großes Leid mitgebracht, sondern die Möglichkeit, die Meisterschaft zu bekommen, gesperrt. Die alte Korporation ließ nicht die Gesellen zum Meister aufsteigen, und Arbeitslosigkeit der Gesellen hatte sie die Heimat zu verlassen und in Ausländer als die wandernde Gesellen niederzulassen gezwungen. Gelegentlich waren diese Gesellen bei den verschiedenen politischen Vereinen und Bewegungen engagiert.

Diese Gesellenbewegung ist heute als frühe Arbeiterbewegung bewertet. Die Arbeiterbewegung von den Gesellen ist auch die gesellschaftliche Voraussetzung für Gründung der verschiedenen politischen Vereine und Arbeitervereine.

Die Arbeiterbewegung ist noch nicht ganz von der Volksbewegung getrennt und die Protestbewegung der Arbeiter war im Vormärz auf der radikalen Demokratie des Kleinbürgertums überlagert.